

**“우산 준비하세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8월 5일**  
(음 7월 12일)

광주	24~33℃
포항	25~33℃
여수	25~30℃
완주	24~33℃
도래	24~35℃
해장	23~33℃
고령	23~34℃
장흥	23~34℃
순천	23~34℃
영암	23~34℃
진안	24~34℃
무안	25~34℃
보성	25~35℃
곡성	23~35℃
영광	24~35℃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0.5m

서해남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0.5m

남해서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09:41 썰물 11:10  
여수 밀물 04:56 썰물 18:27

기상내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4/32	24/32	24/31	24/32	24/32	24/32

## 폭염...

### KTX 속도 300km→230km로 늦춰

폭염(暴炎)은 고속열차의 속도마저 끌어내렸다.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경 경부고속철 영동~김천 구간을 시속 300km로 지나던 KTX열차는 속도를 230km로 낮추어야 했다. 폭염으로 레일온도가 55.3도에 달해 갑작스럽게 떨어진 것이다.

현행 '고속철도운전규칙(제40조)'은 고속철도의 경우 ▲레이온도가 50도 이상 시 주의 운전예에 돌입 ▲55~60도면 시속 230km 이하 ▲60~63도면 70km 이하 ▲64도 이상이면 운행 중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레일은 열에 신축성 있게 반응, 5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곡선 구간 등에서 각종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 고속철은 개통 이후 아직 레일온도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 적이 없었다. 레일 온도가 55도가 넘어도 원래 시속 230km 이하로 달리는 '저속철'이어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었던 것. 호남 고속철의 평균 속도는 시속 160km 가량이다.

한편 기상청은 1개월 예보를 통해 올 여름 무더위가 9월 상순까지 계속되고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4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면 9월 10일까지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주희기자 jhlhm@kwangju.co.kr

### 오현섭 여수시장 징역 6월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유사 선거 사무실을 설치한 혐의(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오현섭(56)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표면적인 정당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유사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 전진대회를 앞두고 초청장을 발송한 것은 피고의 계획적인 선거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교육위원 선거 신고포상금 1,300만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치러진 제5대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현행법상 금지된 금품·향응제공 행위를 한 후보자를 신고 또는 제보한 6명에게 모두 1천3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는 7건의 검찰 고발 사건을 제보자들의 신고로 적발했으며, 6건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나머지 1건의 제보자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7월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현금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후보자를 신고한 A씨는 40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후보를 제보한 B씨는 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게 된다.

/정승필기자 camus@kwangju.co.kr

## 프로기사 꿈꾸는 '한국기원 광주 남구지부' 바둑영재 7명의 여름나기

# '반상 열기' 더위마저 녹이다

(盤上)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 땀을 뺀으로 식하며 바둑 공부에 매달리는 '돌부처'들이 있다. 이들은 사법고시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며 바둑판에 쏟고 있다.

오규철(54) 9단이 운영하는 '한국기원 광주 남구지부'에는 권재규(14·문성중 1년) 군 등 초·중생 7명이 무더위를 잊고 바둑삼매에 빠져 있다. 여름 방학을 반납한 이들의 목표는 입단테스트를 통과한 뒤 신인 비급 출신인 이세돌(23) 9단처럼 당당한 프로기사가 되는 것이다.



'한국기원 광주 남구지부'에서 오규철 9단(사진 왼쪽)에게 바둑을 배우고 있는 광주 문성중 1년 권재규(14·오른쪽)군과 바둑 영재들.

권군 등의 1차 목표는 1년에 100명 가운데 1명(우승자)에게만 입단을 허용하는 '지역 연구생 대회' 우승이다. 2차 타킷은 봄·가을 각각 150명 가운데 2명씩을 뽑는 정규 입단 대회.

이 같이 살인적인 관문을 뚫기 위해 자신의 몸을 '송곳처럼' 단련해야 하는 이들에게 여름 방학은 바둑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금싸라기 같은 기간이다.

진로를 바둑으로 정한 권군은 하루 평균 14시간 가량을 바둑과 씨름하고 있다. 피서는 잊은 지 오래고 예체능 학원은 바둑을 배운 초등학교 3학년 이후 다녀본 적이 없다.

스승과 하루 종일 대국하면서 사활과, 대세 보는 법 등을 익힌다. 집에 돌아가서는 정석(定石)·사활(死活)·행마(行馬) 등에 관한 책과 기보를 보고 독학에 들어간다.

## '100대 1 경쟁률' 뚫기 위해 하루 14시간 '바둑 삼매경' "물놀이 생각도 못해요"

권군 등은 이른바 '바둑 영재'들이다. 부모들이 집중력 향상을 위해 바둑학원으로 이끌었지만 타고난 기재(棋才)가 드러나 프로 기사의 문하생이 된 케이스가 대부분. 함께 공부하는 이민서(9·나주 초 2년)군은 친구들과 놀기에 바빠 때때로 어린 티를 벗은 지 오래다.

비지땀을 흘리는 이들의 목표는 18살 때까지 프로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입단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프로 입문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부모들의 뒷바라지도 만만치 않다. 권군과 같은 경우 바둑 도장 지도비용과 식사비를 포함할 경우 한 달 평균 50여만원을 바둑 공부에 투자한다. 서울 유명 도장에서 공부할 경우 숙식비 포함, 1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바둑학원은 광주 50곳 등 전국적으로 780여 곳에 달하지만 지방에서 공부하는 프로 입단 지망생들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오규철 9단은 "진로를 결정해야 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바둑 공부의 능력이 오르지 않아 포기하는 학생도 있다"며 "중도 포기할 경우에도 강한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쳐진 공부를 금방 만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프로 입단의 가시밭길은 '즐거움' 공부일 뿐이다. 권군은 "한 번도 바둑이 싫증난 적이 없었다. 컴퓨터 게임은 재미가 없다"며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둑 공부에 매달리는 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웃었다.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어르신 안전하게' 전기 점검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4일 오후 지동동의 한 독거노인 집에서 무상으로 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동구청은 무더위를 맞아 전기수요가 급증하자 안전을 위해 독거노인 10세대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50대 카페 여주인 손발 묶인 채 피살

카페 여주인이 손발이 묶인 채 잔인하게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L카페에서 주인 김모(여·52·광주 서구 치평동)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아들 서모(2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서씨는 "문을 열고 카페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손발이 묶인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흥기로 목을 찔러 잔인하게 살해된 점으로 미뤄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 나원침 (6899) 김동욱



**연예2차(동림) 대주 피오레**  
1,300여 세시 중 35명 333명  
문의 (062)366-4220

### 담양서 유사취발유 제조

### 광주시내 팔아 억대 챙겨

광주 서부경찰은 4일 유사취발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판매자 김모(36·광주 남구 봉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동업자 양모(44·대전시 동구 가양동)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말부터 담양군 수북면에서 유사취발유 14만ℓ을 제조, 1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15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 내에 4천800ℓ 크기 정화조 통 3개를 비치, 톨루엔·솔벤트·메탄올을 섞어 광주시내 7개 업소에 18ℓ 당 1만3천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취발유를 구입한 판매업자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 성폭행후 금품 강탈

4일 새벽 5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 모빌라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침입, 이 집에 살고있는 A(여·20)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 인터넷 도박 중 상대 빼 볼 수 있게

# '해킹 프로그램' 개발·판매

### 업체 대표 등 11명 적발

사행성 PC방 도박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유통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4일 성인 PC방용 도박 프로그램에서 상대의 패를 읽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이모(32)씨와 이 프로그램 유통업체 대표에게 판매한 김모(37)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유명 Y대학 프로그램 관리팀장을 사칭한 이씨는 사행성 PC방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PC 이야기'와 '누투피아'와 해킹 프로그램 '돌보기'를 개발, 지역 총판업자 김씨에게 2천

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김씨 등 10여 명은 이씨에게 구입한 프로그램을 복사해 지난달 29일 개당 3천만원~1억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 '돌보기'는 게임 중 상대방의 모든 패를 볼 수 있는 '포커뷰어' 기능과 대기 중인 카드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카드 추출' 기능, 원하는 패를 다른 게임자에게 공급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프로그램을 저장시켜 유통해 왔다.

경찰은 프로그램 개발자 이씨 등으로부터 현금 4천만원과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USB 장치 94개를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해킹 프로그램 '돌보기'는?

# 마음에 드는 패 골라 가져올 수도 '선수' 고용 90%대 승률 사기도박

사행성 PC방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이용객들의 돈을 뜯는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킹 프로그램 '돌보기'는 사행성 PC방용 도박 프로그램인 'PC 이야기'와 '누투피아'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작동한다. 프로그램 용량은 12M 정도로 작다. 프로그램 자체가 워서 버와 함께 연동되기 때문이다.

작동 방법은 간단하다. 해킹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 장치를 본체에 꽂기만 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돌보기'에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포커 뷰어' 기능이 있어 전체 52장 카드를 볼 수 있다. 해킹프로그램을 켜 상태에서 '포커'를 할 경우 3번째 장까지는 원래 게임화면처럼

카드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4번째 장부터는 상대방 카드가 뒤집혀 나뉘어 '카드 추출' 기능이 있어 게임 승부를 마음대로 조작했다.

피해자는 사행성 PC방을 이용한 손님들이었다. 사행성 PC방 업자들은 판돈 규모가 큰 게임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 승률 90%대 사기도박을 벌였다. 본사는 같은 방법으로 승률 100%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대부분의 도박 사이트 본사에서 이른바 '선수'를 고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게임 초반에는 돈을 잃어주다가 판돈이 커졌을 때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돈을 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정택성씨 유족 '서울 1945'에 손해소

○작교한 장택성 전 국무총리의 유족이 KBS 드라마 '서울 1945'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 전 총리의 딸 병혜씨는 "드라마 '서울 1945'가 아버지를 여론형 암살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장씨는 소장에서 "KBS '서울 1945'는 당시의 정치상황을 왜곡하고 여론형씨의 정치위상을 과대포장해 이승만 박사와 당시 장택상 수도청장을 여론형 암살의 배후라고 시청자들을 기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와 장병혜씨는 지난달 6일에도 "'서울 1945'가 허위 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 사장과 제작본부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고소. <연합뉴스>